

이코노 & 비즈 피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광주에 200억 투자 中企회관 건립”



납품단가·업종침해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제4이통 진출·전용 흡소핀 中企 성장동력 될 것

“중소기업인들이 담당하게 사업하는 환경을 만들어겠습니다. 특히 광주에 20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회관’을 마련, 지역 기업의 경영에로 윈스를 해결하고 지역본부의 자립기반도 다져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 중소기업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광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관 건립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산은 협조가 잘돼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광주도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중소기업회관을 증축한데 이어 내년 6월 서울 상암동에 지상 20층~지하 6층 규모의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를 완공, 중앙회의 자립기반을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문제를 공론화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을 강력히 주장해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뺀 중소기업에 나눠준다고 한들 좋아할 중소기업이 어딴겠느냐”면서 “다만,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적정 이익을 보장받아야 인력을 채용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설비도 투자하는 등 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업종침해, 기술탈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와 대기업들이 협력하기로 공감한 터라 이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역 중소기업계의 경영여로 해소를 위해 이날 전남도

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리감독 강화,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등을 도청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도 추진 중이다. 그는 “IT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범(汎)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초 개국하는 중소기업 전용 흡소핀 사업은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고 직매입제 등을 도입해 판매 단가를 낮추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괴산 출생인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제23대 회장에 당선된 데 이어 올해 2월 연임이 성공했다. 그는 1988년 손목시계 제조업체 ‘로만손’을 설립해 연매출 800억 원대의 기업으로 키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8월 광공업 생산 소폭 증가

광주·전남 전년보다 5.3%↑·전달보다 5.7%↓

광주·전남지역 8월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0일 내놓은 ‘2011년 8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동향’을 보면 광주의 8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하고 전달보다 5.7% 감소했다. 생산

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자동차(13.2%)를 비롯, 음료(51.9%)와 담배(101.3%)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기계장비(-30.9%), 전기장비(-18.4%), 섬유제품(-15.0%) 등은 감소했다. 반면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감소했으며 전달에 비해서도 10.8% 감소했다. 또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증가, 전달보다 16.8% 증가를 기록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늘어나고 전달보다는 2.0%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 화학제품(4.9%), 기타운송장비(71.1%), 비금속광물(5.2%) 등이 증가하고 1차 금속(-1.2%), 금속가공(-18.2%), 식료품(-38.4%) 등은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하고 전달보다 4.8% 감소했으며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증가, 전달에 비해서는 3.3% 감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웃도어 알뜰구매 하세요

지난 30일부터 지역 백화점의 가을 정기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신세계 백화점 아웃도어 특별기획전에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빅3 백화점 상생안 ‘퇴짜’

공정위 “판매 수수료 3~7% 인하는 미흡”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이른바 ‘빅3’ 백화점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주요 백화점 실무자들이 자체적인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들고 왔으나 수준이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며 “애초 합의했던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의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빅3’ 백화점들은 이에 앞서 백화점 협회가 주관한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마련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이날 오후 공정위에 제출했다. 백화점들이 공정위에 제시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100억원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 ‘빅3’ 백화점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영업이익의 8~10% 규모와는 격차가 현격히 큰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계산하면 700억~800억 원에 달하며 현대와 신세계는 롯데의 절반 수준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마감시한을 앞두고 오늘 주요 백화점 실무자들이 애초 공정위와 합의했던 3~7%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들고 공정위에 찾아갔으나 공정위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빅3’ 백화점과 함께 할인점과 흡소핀 등 이날 초 공정위와 판매수수료 3~7% 인하안에 합의했던 11개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들이 이날 공정위에 자체적인 인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우편 요금 20원 인상

다음달 1일부터 국내우편 요금이 20원 오른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통)는 서비스 품질향상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우편 요금을 2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국내우편 요금을 20원(종량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g이 넘는 고(高)종량 우편물의 종량별 구간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행(50g마다 12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우편 요금도 인상한다. 항공서간, 항공엽서는 각각 20원이 인상된 420원·370원으로, 선편엽서는 10원이 인상된 260원으로 올릴기로 했다. 그의 국제 일반우편은 종별·지역별·

종량별에 따라 평균 142원 인상한다. 국내우편 요금인상은 2006년 이후 5년 만에, 국제우편 요금인상은 2002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IT 발달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도입 등을 위한 인프라 강화와 노후 우체국의 신·개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편요금 조정에 맞춰 새로운 우표를 발행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70원 보통우표와 240원 우편엽서는 태극기를 소재로 발행된다. 360원 우표는 나팔고동을, 등기우편물에 주로 쓰이는 1천700원 우표는 신라시대의 토우 장식장경호를 소재로 발행된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자동차·IT·中 소비주 저점 매수 노력볼만

남유럽 채무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해외 악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국내 증시는 KOSPI가 한 주간 130포인트를 넘나드는 변동성 장세로, 연중 최저점까지 밀리는 공포 분위기에 빠져나와 적극적인 반전에는 성공했다. 해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유럽사태가 일단 유로존 내 정책공조 분위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장 그리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른바 트로이카의 그

리스 실사 재개 이후 이어질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또 다른 번복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그리스 의회가 적극적인 재정감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EFSF 증액을 둘러싼 유로존 각국의 사태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디폴트보다는 자금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유럽사태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리스크의 완화 조짐과 더불어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하며 자금이탈 우려를 자국했던 외국인도 국내로 눈을 돌리며 유·스퀘어 문화관 등 유망주를 사들이는 모습이 보인다. KOSPI 1700선의 지지선 역할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초 그리스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서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업종과 최악의 영향을 넘기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IT업종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외에 국경결연휴를 전후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저점 매수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like 전복구이, 전복스팀, and 전복아침. Includes contact info: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featuring a table with menu items and prices, and contact info: 062) 671-1199.